

역사적 개혁신학과 대신교단의 정체성¹

조성재 목사

1. 서언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이 창립된 지 반세기가 넘었다. 올해로 창립 53주년이 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신교단은 거듭 성장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다양한 사역지에서도 건전한 복음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대신교단 유럽과 중동 총동문회를 기념하여 대신교단의 신학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또 다른 반세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말씀사역자요, 이국땅 나그네 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의미뿐 아니라 앞으로 세워져 나아갈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어떤 신학적 입장인가에 따라 우리의 복음사역 방향과 삶의 지향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대신교단의 신학정체성

1961년 6월 21일 김치선 박사가 초대 총회장으로 피선되면서 대신교단은 ‘대한예수교 성경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한다. 이후 1969년 4회 총회때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장측)’으로 개명하였다가, 1972년 7회 총회를 통해 지금의 명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이 되었다.

주지의 사실은 대신교단으로 개명한 후 2년뒤 9회 총회에서 대신교단은 “교회선언문(1974. 8.1)”을 채택 발표한다. 이 선언문은 교단이 지향하는 바 신학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드러낸 최초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음은 교회선언문의 주요 내용이다.

“1. 신학적 교리적 입장

- 1) 우리는 성령으로 영감된 신·구약성경이 기독교회의 유일무오(唯一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임과 신앙과 생활의 기준(規準)임을 믿으며 역사적 기독교회의 공동 신조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고백의 표본(標本)으로 삼는다.
- 2) 우리는 성경만이 기독교회의 근본원리임을 믿는 역사적 개혁파교회의 전통(傳統)과 정통(正統)을 지켜나간다. 역사적 개혁파 교회란 사도들의 신앙적 유산을 토대로 하여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질된 기독교회를 개혁하고 역사적 기독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보존하며 발전해 나가는 진정한 기독교회를 의미한다. 개혁파 교회는 교회의 일치를 위한 교회신조의 교리적 기준을 유지하는 한편 교회신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적이며 객관적인 논증을 거쳐서 시정할 수 있다.
- 3) 우리는 신율적 복음주의(神律的 福音主義) 입장이다. 신율적 복음주의란 신·구약성경이 통일적 계시 진리(啓示真理)로서의 하나님의 도덕율법(道德律法)임을 믿는 복음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카톨릭 교회의 성례주

¹ 이 글은 본인의 m.div. 신학생시절 소고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유럽선교대(2011.4.26~28, Herbstein) 취지에 맞춰 수정, 작성하였던 것이었는데, 2014년 9월 8일 유럽, 중동 대신동문회를 위해 다시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의와 자유주의 교회의 율법경시주의와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율법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죄와 구속(救贖)의 관계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신정통주의적 입장과는 다르다.

- 4) 우리의 신학은 개인신앙의 주관적 학적 표명(表明)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회의 교회성을 본질로 하는 교회신조(敎會信條)에 의한 개관적 학적 석명(釋明)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표방(標榜)한다. 이는 우리의 신학이 칼빈 한 사람의 개인의 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신학적 입장이 성경의 계시진리를 역사적 기독교회가 신조 또는 교회의 신학자들의 저술형태로 고백해 온 체계적 진리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학은 역사적 기독교회의 공동신조(共同信條)를 비롯하여 억거스틴, 루터, 칼빈, 베자, 17세기 개혁과 신학자들,² 17세기 개혁교회와 교회의 신조들, 19세기와 20세기의 개혁과 교회 신학자들에 의해 변증, 변호, 보존되어 온 역사적 기독교회의 전통적 입장이다.

2. 교회정치

- 1) 우리는 장로주의체제가 성경적 교회의 고유한 정치체제임을 믿으며 장로들에 의한 정치, 교직평등, 단계적 교회회의를 통해 교회의 통치권이 행사됨을 원칙으로 한다.
- 2) 우리는 교회의 자율적 원칙에 의해 교회정치를 행하며 국가에 대해서는 영역주권적 정교분리(領域主權的 政教分離)의 원칙을 주장한다. 영역주권이란 정권과 교권을 구별하여 국가는 국가권력,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지배권 즉 교권에 의해 통치됨을 의미한다. 교권이란 어떤 특정한 교회 계급의 독점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 전체에 부여하신 위탁권을 의미한다.

3. 신앙생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도덕 율법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음을 믿고 실천한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1과 9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도덕율법으로서 신앙생활의 유일한 도덕규준(道德規準)임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신앙(聖經信仰)의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무율법적(無律法的)이고 자율적인 자유로운 행위에 의한 선행이나 우리의 양심과 분별력, 신념이나 신앙의 분량 등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맹목적인 복종도 하지 않으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만이 선이며 온전한 행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실천한다.”

보는 바와 같이, 교회선언문에는 ‘오직성경 (sola scriptura)’ 원리를 따라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이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신구약 성경의 신적영감을 통한 무오성,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 율법의 제 3사용, 교회의 열쇠권이 회(會)(unitas)에 주어진 것으로 보는 장로주의정치, 정교분리원칙, 16, 17세기 개혁교회 신앙고백들과 개혁신학자들 존중 등이다. 교회선언문은 대신교단 헌법 전면에서 채택되어 있어, 개혁교회의 신앙유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년판)와 더불어 교단의 신학 정체성을 대내외 선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교단이 표방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역사적” 개혁교회에 관련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소위 ‘개혁신학’이 모두 ‘역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² 칼빈이후 대표적인 16,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Theodor Beza(1519-1605), J.J.Grynæus, Hieronymus Zanchius, B.Copus, Pierre Biret(1511-1571), Guido de Bres(1522-1567), Petrus Dathenus(1532-1588), Caspar van der Heyden(1530-1586), Pierre de Cologne (Petrus Colonius, 1530-1571), Jean taffin, Herman Moded(1520-1603), Adrianus Saravia(1532-1613), Johannes a Lasco, F. Junius, Daniel de Dieu(1540-1607), Johanes Fontanus(1545-1615), Wernerus Helmichius (1551-1607), Petrus Matyr Vermiglius, Musculus, Petrus Boquinus(Pierre Bouquin), Zacharius Ursinus, Casper Olevianus, Johann Heinrich Alsted(1588-1638), Heinricus Antonides Nerdenus(1546-1614), Johanes Maccovius(1588-1644), Rivetus, Festus Homnius, W. Amesius, Herman Ravensberger(1586-1625), Heinrich Alting(1583-1644), Samuel Maresius(1599-1673), Giberus Voetius(1588-1676), Georg Sohnius(1551-1589), Christoph Pezel, Mattius Martini, Lugwig Crocius, J.Jak. Grynæus(1540-1617), Amandus Polanus(1561-1610), Thomas Cartwright, Walter Travers, Edgerton, Barber, Gardiner, John Fobes(1588-1638), John Knox, Andrew Melvil 등이며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교의학 I, 김영규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pp. 207-246), 이외에 William Bucanus (? ~ 1603)와 같이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개혁신학자들이 연구과제로 주어져 있다.

3. 한국에서의 일반적 개혁주의 신학 이해에 대한 의문(疑問)

대한신학대학원대학 김영규 교수는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혁신학의 유입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은 그 원류(原流)부터 다양성을 안고 시작하였다는 것이다.³

1907년 9월 17일 한국에는 갑작스럽게 최초의 장로교 독노회(the independent Presbyterian Church)가 설립되었다. 이시기를 전, 후해서 한국을 향한 모교회들의 선교정책은 ‘하나의 복음주의 교회(one evangelical Church)의 형태, 즉 “한국 그리스도교회”(the Church of Christ in Korea)를 만들려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공동성경번역사업과 합동찬송가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 같은 합동운동은, 이미 독노회가 세워지기 몇 년 전부터 감리교의 집회운동이 장로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후, 한국교회부흥의 모범이 되었고, 그 신학의 근거에서는 사실상 감리교와 장로교가 구별되지 않는 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한국선교의 모 교회는 당시 한국교회 상을 1901년 미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오순절 운동과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교회연합운동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장로교 선교회(영어공의회)는 1908년 독립적인 형태의 장로교를 세우려고까지 계획했었으나, 그와 같은 합동의 운동은 한국에서의 독노회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주춤하게 된다. 이때 한국 장로교 독노회가 채택한 것이 인도 장로교회의 단순한 고백형태인 12신조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고백에는 개혁신학의 독특성이 잘 드러나 있지 않는 신앙고백이었다. 예를들면 예정론에 있어서 유기론에 대한 고백이 없고, 그리스도의 제한속죄에 대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마도 그것은 교파를 가릴 것 없이 단일교회 형성을 바라던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이는 선교지 신학의 한계이며, 유아기 교회로써 역사적 개혁주의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 당시 미국 북 장로교 상황을 살펴보면 보다 더 분명한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수정작업(1902-1903)으로 표상되는 그 시대의 연합적인 시대정신이다. 그때의 한국 선교의 모교회들은 교회부흥과 선교운동으로부터 온건하고 진보적인 입장을 수용하는 분위기였고,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것의 반영이다.⁴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령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해서 34장과 35장을 첨가하였고⁵, 16장⁶, 22장⁷, 25장⁸을 수정하였는데, 맹세거절에 대한 죄를 부정하고(22장 3절), 카톨릭 입장을 적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비성경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25장 6항), 이방인들이 선이 있음을 인정하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찬양할 가치가 있고, 유용하다(16장 7항)는 식으로 수정하였다. 특히 3장⁹과 10장¹⁰에 관한 해석으로 선언문을 첨가되었는데, 영원한 작정교리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유화, 구원의 은혜가 만민에게 미친다는 교리와 조화한다 첨언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을 위한 충분한 구원을 제공하셨고, 그 구원을 모든 이들에게 적용하시며, 복음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셨다고 수정하였다. 수정된 10장 3항에서는 유아로 죽은 자는 누구나 은혜의 선택 안에 포함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그가 기뻐하신 때와 장소, 및 방법에 의해서 중생되고 구원받는다고 선언한다. 이는 아르미니우

³ 이후 박형룡 박사까지의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대략은 김영규 교수의 “17세기 개혁신학”(안양대 신대원, 1996, pp. 2-6)에 있는 것을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이하 각주에서는 ‘17c’로 표기한다.

⁴ 대신교단은 수정되지 않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고 있다.

⁵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성광문화사, 1998, p.467.

⁶ Ibid. p. 466. “비록 그 자체는 찬양 할만 하고 유용한 것이라고....”.

⁷ Ibid., p. 467. “맹세를 함으로 자기를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

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나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면 비성경적이고 부당하며...”.

⁹ Ibid. p. 466 선교운동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죄인의 죽음도 원하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실 구원을 준비하신 것과 조화되게 주장되어야 한다...”.

¹⁰ Ibid. “우리는 유아 때에 죽은 모든 이들이 은혜의 선택 안에 포함되며,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믿는다”.

스보다 더 진보적인 웨슬레주의에 가까운 선언이며, 결과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교리에 있어서 감리교와 장로교는 구별되지 않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모교회의 상황이 직, 간접적으로 한국교회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주의할 것은 이후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장로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1920년대 이후), 박형룡 박사의 자유주의에 대한 싸움은 교회의 보수적인 경향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싸움의 대결구도와 주제가 박형룡 박사의 스승인 메이철의 근본주의적인 신학에서의 자유주의와의 싸움과 비슷한 것이었다는 점이다.¹¹ 따라서 그를 통해 유지될 수 있었던 보수적인 신학성향은 비록 자유주의 신학에 양보하지 않은 정통신학의 내용과 선에 일치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혁주의의 독특성이나 개혁주의 자체에 대한 깊은 연구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곧 한국 장로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을 깊이 있게 소개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시대 신학적 토양에서 어떤 특정한 신학입장을 단순히 “개혁주의적”이라고 명명하기는 조심스럽다. 어떤 교회적 현상이나 신학적 입장을 연구함에 있어 우선 요청되는 것은, 그 현상과 입장 자체보다 그 준거로써 개혁주의 신학 자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시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교회적 현상과 신학적 입장 내에 개혁주의적이라 규정할 내용적 근거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교회(ecclesia reformata)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semper reformanda)라는 표현이 우리시대에 필요에 따라 쇄신 혹은 변혁(transformed)의 의미로 오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교단 선언문의 “역사적” 개혁신학에 대한 표방은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다.

4. 교단선언문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한 역사적 개혁신학의 준거들

그렇다면 “역사적 개혁교회와 전통과 정통”이라고 표현된 신학적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가?

16, 17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개혁교회와 전통과 정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 한편으로 로마카톨릭주의와 대별되고, 다른 한편으로 재세례파, 루터주의와 구별되는 신학적 독특성을 함의한다. 즉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규범인 성경아래 공교회의 재신조들을 존중하며, 어거스틴 전통을 따르는 칼빈, 베자를 위시한 16, 17세기 신학자들과 신앙고백들을 통해 형성된 “역사적 신학전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교회선언문에 축약된 역사적 개혁신학의 내용적 구체성을 살피도록 한다. 헌법에 명시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참조하되, 교회역사 가운데 남겨진 역사적 개혁신앙의 독특성을 몇가지 논점들을 중심으로 짚어 나아가도록 하겠다.

1)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성경 - 개혁신학원리

어떤 학문이든 각각의 원리가 있듯이 신학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삼는다. 하나님은 본성의 빛과 창조, 섭리 안에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이 계시(일반계시)되셨을지라도,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계시는 오직 특별계시인 성경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와 분리되지 않은채 자기 백성에게 알려지신다. 따라서 하나님에 관해(de Deo) 말할때 그 근원으로써 계시가 먼저 다

¹¹ 김영규, 17c, op. cit, pp. 4-6; 박형룡 박사의 출판물인 “신학난제”와 근본교리들“과 메이철의 출판물인 “신앙이란 무엇인가?(1928)“, “바울종교의 기원(1921)”, “기독교와 자유주의(1923)”의 구조 비교 분석 참조.

루어게 되고, 그의 기록게시에 관해(de Scriptura) 말할때는 계시의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을 염두한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요, 말씀은 하나님에 기원한다. 여기에 성경의 신적권위와 자체가 신성(autopistie)이 근거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이점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 “믿어야 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고)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수납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WM,1,4).” 성경의 모든 속성이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에 의존하듯이,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수납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내적사역에 의존한다. 성경은 “그 내용의 고귀함, 교리의 효과,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일치성, 전체의 목표,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온전한 발견, 그외 비교될 수 없는 많은 우월성 및 그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들은 그 성경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 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사역에 달려 있다 (WM,1,5).”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주체가 되신다. 계시기록의 발생과 종결 뿐만 아니라 계시의 실제적 적용도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리고 있다. 개혁교회 신앙고백에서 성경과 성령역사의 불가분의 관계는 이런면에서 항상 보존되어 왔다.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언하시고, 후에는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가 더욱 더 공고히 서고 더욱 더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것들을 온전하게 기록하기를 기뻐하시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전의 방법들은 오늘날에 중단되었다(WM,1.1).”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성경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도하며, 유일하고 필요한 결과가 성경에서 추론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느 때라도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유전으로서는 아무도 성경에 더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내적조명이 말씀에 계시된 그와 같은 것들의 이해를 돕는 일에 필요하다는 것을 ... 인정한다 (WM, 1,6).”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에 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한 시기에 계시의 종결성과 성령의 내적사역을 개혁교회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확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 예정론과 관련한 제한속죄

일반적으로 예정론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개혁주의라고 본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다루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안에 구원의 방편과 적용도 포함시키고 있다(WM,3,3~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보다 조금 앞선 시대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해가 성경을 따라 개혁교회의 공적고백으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도르트회의(1619)의 결정과 관련해 생기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그 논쟁의 핵심이 예정의 시기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비롯된다.¹² 그러나 개혁신학에서 논점의 핵심은 예정의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

¹² 마치 타락 전, 타락 후 선택설에 표현된 ‘전,후’의 개념을 시간적으로 오해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supra 와 infra 를 한 국어로 오역한 데 기인한다. 보다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죄로 인한 타락을 고려하셨는지 여부(infra 혹은 supra)이다.

정론 내용 자체에 관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의 문제이다. 개혁신학 입장은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고백한다.¹³ 칼빈 시대에 알려져 있는 절충형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위해 충분히 고통 받고 죽으셨으나 다만 그 효력에 있어서 택자에게만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다.¹⁴ 그러나 이러한 도피성 발언을 칼빈은 그의 요한일서 2: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의 주석에서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여기서 바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곧 모든 세상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모든 유기자들과 심지어는 사탄까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 가능성을 확대하는 이유로 삼는 환상적인 우리들의 허황한 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다. 그런 무도한 자들의 망설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 왜냐하면 요한의 목적은 이 축복을 전 교회에 공통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두’라는 단어를 사도요한이 사용하였다 해서 곧 그것 자체가 유기자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며, 다만 모든 믿는 사람들과 지구 위의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여기서 예정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갖는 실천적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 예정교리를 신중히 다룰 것을 권면한다. “지극히 신비한 이러한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취급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를 침묵하거나 피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성도의 구원의 확신과 위로의 근거가 된다고 밝힌다. “그렇게하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그의 뜻에 복종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케 되고 자신들이 영원히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된다. 그러기에 이 교리는 신실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공경하는 일과 겸손, 근면 및 풍성한 위안에 관계된 모든 요소들을 제공하여 준다 (WM,3,8).” 하나님의 예정교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 심판주 등으로 아는 것처럼 같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예정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이 교리의 핵심은 예정론을 아는가에 있지 않고 예정교리를 믿는 자로 사는가에 관련한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선교의 현장이나 극한의 삶에서도 주의 복음사역자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보이지 않는 주의 교회가 있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 모든 삶의 고뇌 위에 주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성도의 성도다움을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예정교리의 실천적 의미가 있다.

3) 언약의 통일성 - sola & tota scriptura

개혁주의 내에서의 언약의 통일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하나 되심을 통해 근본적으로 그의 사역과 모든 경륜이 통일성을 유지하게 된다(*opera Trinitatis ad extra sunt indivisa*).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경륜 아래 구원의 성취(*in Christo*)와 구원의 서정(*per Spiritum Sanctum*)에서도 통일을 이룬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는 은혜언약의 궁극적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이가 없다.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의 차이는 언약의 집행방식에 따른 것이요, 언약의 본질적 차이는 아니다. “이 언약

¹³ 김영규, 17c, op. cit, pp. 6-8.

¹⁴ 칼빈. 요한일서 주석. 한철하외 공역, 성서교재사, 1995, p 195.

¹⁵ 칼빈. 요한일서 주석, op. cit., pp. 193-194.

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와는 다르게 집행되었고 율법 하에서 이 언약은 ... 오실 그리스도를 미래 상징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집행되었고 ...(WM,7,5) 복음 아래에서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때에 ...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모든 족속들에게 더욱 더 온전하고 확증적이며 영적인 효과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신약이라 부른다. 따라서 두 가지의 은혜 언약은 본질상 차이가 없으며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다른 세대에서 다르게 작용한 것 뿐이다 (WM,7,6).”

4) 기독교론과 관련해서 육체 밖의 로고스 존재 -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finita non recipiunt infinita)”

성찬론 논쟁은 종교개혁이후 루터파와 개혁파를 구별하는 주요한 기준선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인 기준선은 성만찬 교리자체 이전에, 그 논쟁의 배경이 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존재방식에 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문제를 두고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육체 안에서 실제적인 통일성을 주장하되 육체밖에는 로고스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개혁파는 육체 안에 인격적인 통일성(**totus Christus**)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육체 밖의 로고스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 문제가 성만찬 논쟁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루터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과 교류하여 실제적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totum Christi**) 즉 인성이 신성과 함께 세상 어디에나 편재하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은 로고스화 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땅 어느 곳이나 편재하며, 성만찬시 그리스도의 편재하신 몸이 떡과 함께(떡 옆에, 떡 아래에, 떡 위에) 있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장면이나, 사도신경에서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상징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반면 개혁신학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하늘에 승천하셨고, 성찬시 육체적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임재를 주장하였다.

5) 개혁주의는 장로회 정치원리를 표방한다.

- 그리스도의 열쇠는 성직자 개인(**uni**)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 회 자체(**unitati**)에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교회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있다(마 16:18~19).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에라스투스주의와 회중주의(독립파)가 각각 참여하였는데, 에라스투스주의는 그 열쇠를 관원에게 속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회중주의에서는 베드로 개인을 통해서 회중 자체에 주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웨스트민스터총회에서는 둘 다 장로교 정치원리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더 치열한 싸움은 회중주의와의 싸움이어서, 장외에서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사무엘 러더포드를 비롯한 유럽 개혁신학자들에 의해 문제제기 된 회중주의 교회 정치형태는 비단 교회정치 체제에 국한 것은 아니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들의 비판이 당시 에라스투스주의 뿐만 아니라 회중주의 교회 지도자들의 신학적 근거에 만연해 있던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소키니우스주의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⁶

6) 세속정치에 대한 저항권 - 교회의 독립과 정교분리원칙

칼빈에게 있어서 저항권은 교회 안에서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관원에 대한 저항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오직 성경’으로 저항하는 것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세상과는 정치형

¹⁶ 김영규. 17c, op. cit., pp. 11-13.

태로는 구별되지 않으나 삶의 원리에 있어서 구별된다. 하나님의 왕국은 속성과 목적 면에서 독립적이며 원리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공화정이든 중요하지 않다.¹⁷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요 머리아시라는 고백이 원리적으로 개혁주의에 내재하기 때문이다.¹⁸ 이것은 어떤 특정 성직자의 수위권을 인정할 수 없는 신학적 근거이다.

7) 율법의 제3사용과 관련해서 주일성수와 예배의식들

의식법으로써 율법의 제1사용과 실정법으로써 율법의 제2사용은 그리스도의 구속성취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어도, 십계명과 같이 영원한 도덕법으로의 율법의 제3사용은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의 유효한 규례로 남아있다. 칼빈이 제4계명 안식일 준수를 도덕법¹⁹으로 이해한 이래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²⁰ **Bound**는 안식일에 관한 논문에서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지켜져야 하며, 그 법은 도덕적이고 영원한 법이라 하여 주일을 세속화하는 스포츠나 오락게임을 버릴 것을 말하였다.²¹ 이와 동일하게 William Gouge는 사도행전 20장 7,11절의 주석근거로 24시간 주일성수를 강조하였다.²²

5. 대신교단의 현시대적 과제

이상은 역사적 개혁신학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자 칼빈, 베자를 이어가는 개혁신학의 독특성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교회선언문은 이러한 역사적 개혁신학의 핵심내용을 대신교단 신학의 정체성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혁신학은 역사적으로 이미 형성되고 확정된 어떤 고유한 교회의 신앙유산으로의 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혁신학을 말할 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변혁하고, 바꾸어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미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다. ‘역사적 개혁교회 전통과 정통’을 표방한다 함은 무언가를 변혁하고 대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교회역사 가운데 남겨진 깊고 풍성한 신학적 보고를 연구하고 다시 발굴해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같은 길을 말씀에 따라 동일한 신앙정신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의 생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개혁신학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 지금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새것이 아니라 옛것을 바로 찾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은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과 역사적으로 개혁된 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혁신학의 피상성(皮相性)을 견제하기 위해서 16, 17세기 정통개혁신학자들의 풍부한 신학적 유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¹⁷ Ibid., p. 13.

¹⁸ Ibid., p. 14.

¹⁹ 루터주의에서 성경을 율법과 대조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이 복음과 동일하게 유익하며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남는다. 곧 율법의 의식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어도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²⁰ 신원균. 칼빈이 제시한 율법의 제3사용이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 고찰, (안양대 신대원 졸업논문, 1997)을 참조하라.

²¹ 김영규. 17c, op. cit., p. 15; Cf. Daniel Neal, The History of the Puritans: or, Protestant nonconformists, London 1822, 262 ff..

²² Ibid., p. 16.

6. 결론 -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써의 개혁신학

개혁신학의 내용적 독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굳이 표현하자면, 개혁신학은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통해 드러난 진리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총체”를 지향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지식은 단순한 인지적 정보(information)로써의 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인격적 교제를 포괄하는 지식이다.²³ 또한 그 근원에 있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요 17:3) 그 지식은 하나님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진리지식이다. 진리로 먹고 마시는 생의 원리가 개혁신학자들의 삶의 방식이며, 그들이 추구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나아갔다 말할 수 있다. 말과 생각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도 주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기동하며 사는 신앙정신이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의 기본이 아닐까!

칼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는”자들의 모든 형태의 봉사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상이란 어떤 객체가 아니라 인간의 자신의 허영과 욕심을 투영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자기 망상에 사로잡힌 자의 예배와 경건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²⁴ 이것은 이미 모세(출 32 사건²⁵)를 통해 우리종교의 처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에 다름아니다.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1545년) 첫부분을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하도록 교육했다.

인생에게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Quis humanae vitae praecipuus est finis?*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다. *Ut deum, a quo conditi sunt homines, ipsi noverint.*

칼빈의 견해와 같이 Thomas Cartwright (1535-1603)나 William Bucanus (? ~ 1603) 같은 개혁신학자들은 신학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⁶ 또한 이런 선행자들의 입장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1648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소.문 1.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소.답,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문 2. 하나님께서 무슨 규범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 할것을 지시 하셨는가?

소.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 할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범이다.

“Question 1: What is the chief and highest end of man? Answer: Man's chief and highest end is to glorify God, and fully to enjoy him forever. Question 2.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A.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²³ 마치 성경 창세기와 호세아서에 표현된 히브리어 야다(יָדָה)의 개념처럼 결혼 생활을 통해 부부가 서로 깊이 알아가는 지식과 같다.

²⁴ 칼빈, 기독교강요 I, 4장(생명의 말씀사, 1995).

²⁵ 출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을 뿐 아니라 금고리를 빼어 현금할 정도의 신앙열정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법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어떻게 섬겨야 할 지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패”했다고 정죄하셨다.

²⁶ Thomas Cartwright, A treatise of Christian Religion, London 1616, 1-2; William Bucanus, Institutiones Theologiae, Genevae 1605 = 1625, Loc. I, i.

대.문 6.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 주는가?

대.답,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위격, 그의 신정과 그 시행을 알려 준다.

Q. 6: What do the Scriptures make known of God?

A.: The Scriptures make known: What God is, the persons in the Godhead, his decrees, and the execution of his decrees.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한, 참된 경건과 겸손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다.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일과 현실에 풍요와 성공의 이름으로 포장된 성과가 없을지라도 주께로부터 맡은바 사명을 포기할 수 없음은, 우리 소망이 일과 사건에 있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있음이다. 사람은 일의 성공, 실패에 눈을 두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 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하나님이 주의 진리를 우리 생에 심으시고 자신을 알도록 독려하시는 수단인 것이다.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알고, 그와 동행하는 한, 다 잃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 가진자의 초연함과 소망이 빛을 바랄 수 있다. 쉽지 않은 길, 좁은 길이나,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과 참된 겸손을 배운다. 칼빈과 같은 많은 개혁신학자들은 그렇게 겸비하게 주의 진리를 따라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전 생애를 통해 성경의 진리지식을 드러내고 보존하려 했던 것처럼, 드러난 진리는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자”라는 별칭은 살아서 듣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진리로 먹고 마시며 생(生)을 마감한 자리에서 후대가 내려주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대신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나아갈 지향성은 바로 이런 신앙정신에 잇대어 있다.